

# 사랑,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June 05

• 갈라디아서 5:22; 요한일서 4:7-13

**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.**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의 증거가 ‘사랑’으로 드러납니다. 즉 성령의 사람에게만 ‘사랑’이 드러납니다. 본문에서 말하는 ‘사랑’에 쓰인 원어는 ‘아가페’로 ‘주는 사랑’, 희생적 사랑, 철저히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’입니다. 필레오의 사랑,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이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사랑은 ‘성령’의 열매입니다(갈 5:22).

**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**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.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-23절을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‘사랑’뿐이라고 합니다. 사랑이 여러 유형의 인격, 즉 희락, 화평, 오래 참음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,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(요 3:16). 징계도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(히 12:6, 11).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.

**사랑은 제자 됨의 증표입니다.**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‘사랑하라’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(요 13:34-35).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이 크므로 그 사랑을 받으면 나를 채우고도 남아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랑받은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‘마땅’합니다(요일 4:11).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“아무것도 아닙니다”(고전 13:1-3).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사랑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성령께서 하셔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(요일 4:13).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위임할 때,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.

---

나는 ‘사랑’하고  
있습니까?

- 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?
- ② 내 의지로 사랑합니까, 성령으로 사랑합니까?